



공연예술 관람

글 | 류태형 월간 '객석' 편집장



우물쭈물 A씨, 공연장 가다

객석에 앉아 무대와 객석 사이의 생생한 공기를 시간과 함께 느끼면서 진행되는 공연예술은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접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다. 교육적인 효과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베토벤 '운명' 교향곡 4악장의 치솟아 오르는 관현악의 위풍당당함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전진하는 의연함을 배우고 화려한 무대 속, 사랑에 갈등하는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절규하듯 부르는 아리아에서 사랑의 아픔을 배울 수도 있다. 바로 눈앞에서 역경과 노력을 쏟아내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오르는 연극 무대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무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파드되(2인무)에서 벽찬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멋진 경험이다.

그런데 두 아이를 둔 가장인 회사원 A씨는 지금껏 공연장을 가본 적이 없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뭇에 콩 나듯 영화관을 가고, 프로야구를 좋아해 잠실야구장을 간 적은 많이 있지만,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큰 공연장을 안 가본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김대리가 초대권 티켓을 선물해서 국립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을 봤다.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외출한 A씨 부부. 저녁 식사 후 기분 좋게 입장했지만 A씨 부부는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줄거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간데다 저녁 식사 후의 식곤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초보자가 공연예술을 접할 때의 장벽이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공연 관람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공연 시간의 길이가 길어서 느껴지는 지루함이나 사전 지식 없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평소의 습관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면, 공연예술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단, 이것은 좋은 공연을 봤을 때에 한해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혹은 어린이의 관람이 가능한 공연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고 공연장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방학을 맞아 낮 시간 대의 공연이 늘어나면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공연도 늘어난다. 특히 가정적인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아빠들의 문화적 행보가 A씨는 무척이나 질투가 나고 경계되었다.

A씨는 궁금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연을 보여줘야 할까. 나 자신은 어떤 공연을 보기를 원하는가. 무조건 외국에서 오는 단체의 티켓 값 비싼 공연이면 OK일까.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죄다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 가족이 좋은 문화 공연을 접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이 먼저 그 공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먼저 콘서트 고어가 되자.

자녀들과 동반해서 음악회나 뮤지컬, 소극장을 찾기 이전에 아빠와 엄마가 공연 문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퇴근 후에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씩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다. 요즘은 저녁 시간의 공연이 대개 8시에 시작되어 퇴근시간을 고려해도 참석에 부담이 없어졌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엄마가 학교나 아파트 단위의 부녀회 같은 모임을 조직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같은 모임은 많이 생기고 있다. 주로 공연도 함께 보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는 일석이조의 식도락 동호회를 겸한 문화 동호회들이다. 동호회가 좋은 점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공연을 보고 나서 그때 바로 떠오른 점을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안목도 한층 높아지고 더 좋은 공연을 고를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둘째, 공연예술전문지 구독 등으로 정보를 얻자

우선 매일 보는 주요 일간지에도 문화면이 있다. 인터넷 시대지만 가위와 풀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에 앞선 예술가의 인터뷰나 공연 소개 가운데 정보가 될 만한 것을 함께 스크랩해두는 것도 공연예술 관람의 안목을 키워주는 데 좋다.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위해서는 '객석' 같은 공연예술전문지나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공연예술기획사 크레디아에서 발간하는 월간지(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우송해준다)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들 잡지들은 해외와 국내에서 펼쳐지는 동시대의 공연 예술을 신속하게 사진과 함께 싣고, 또한 까다로운 비평가들의 공연 리뷰가 실리기 때문에 공연예술을 바라보는 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공연 관람에 앞서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자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미리 볼 필요가 뭐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오페라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등장인

물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무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시선은 한 귀퉁이의 자막에만 가있어서야 되겠는가. 공연예술에 예습은 정말 필요하다. 어차피 돈 내고 보는 공연인데, 이왕이면 잘 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오페라와 뮤지컬의 경우에는 DVD로 예습을 한다. 중요한 아리아는 체크해뒀다가 공연의 맥에 액센트를 주는 데 이용한다. 맛있게 진행되는 흥미를 잃어가다가도 귀에 익은 아리아가 나오면 상황은 우리 편으로 급전환되는 법이다.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는 음악회는 말할 것도 없다. 그날 연주될 곡이 담긴 CD를 사전에 아내, 아이와 함께 감상하는 건 어떨까. 함께 들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자. 베토벤 교향곡 6번 '천원'을 들으며, “여기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시골의 풍경 같이 느껴져.” “야, 이 부분은 정말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데...”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곡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각인이 되어 실제로 감상할 때면 흥미가 배가된다.

넷째, 공연을 보는 도중 집중력을 키우기

한 시간에서 두 시간에 이르는 공연 관람 시간동안 정숙을 유지하는 것은 초보 콘서트 고어나 어린 자녀에게 모두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그럴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공연예술을 보는 날은 나부터 일상에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옷차림도 꼭 정장일 필요는 없지만 평소와는 달리 매우 깔끔한 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복장이 달라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자녀와 함께 미리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필수. “뭘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가 없다면, 공연장에서 느끼고 오는 것도 적어진다.

배가 고플 것을 대비, 먹을 것은 공연 전에 먹어서 배를 채워두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허리띠를 풀 정도로 먹는 것은 삼간다. 식후 졸음이 올 수 있다.

음악회의 경우 악장 간 박수를 치지 않는 것, 공연이 끝

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 등 박수의 에티켓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속을 해 둔다. 박수를 칠 줄 알면 자신감도 생긴다. 교향곡이나 실내악곡들은 악장 간에 박수를 치지 않고, 가곡의 경우 프로그램을 보아서 한 묶음 단위로 중간에 박수를 친다. 정 모를 경우에는 눈치껏(?)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살피며 비로소 치는 것이 좋다. 아낌없이 치는 박수는 금, 약간 뒤에 치는 박수는 은, 성급하게 먼저 치는 박수는 동이다. 말을 하는 시간과 침묵을 하는 시간을 차별화하라.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미리 사전에, 그리고 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이용하며, 가급적이면 공연 관람 시간 도중에는 침묵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연 관람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것만은 꼭!

30분 전 도착! 늦어도 10분 전 입장하자. 늦게 와서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가게 비켜달라고 하고, 이것만큼 짜증나는 일은 없다. 공연이 시작된 후엔 원칙적으로 입장금지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좌석을 확인하고, 10분 전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 좋은 공연을 즐길 준비를 하도록 한다.

만일 교통 사정상 늦게 도착했다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대부분의 공연장은 공연자와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 이후엔 출입금지다. 그러나 늦게 와서도 입장할 수 있었다면, 빈자리에 앉았다가 휴식시간에 자신의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장엔 음식물 반입 절대금지이다.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다. 정 배가 고프다면, 미리 휴게실에서 먹고 들어가야 한다.

보다 나은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공연 시작 후에 여기저기서 우루루 이동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꼴불견, 공연자와 관객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조용히 공연에 몰두해야하는 공연장에서 잠을 자거나 부스럭거리며 프로그램을 펴 보는 사람은 공연장에 와서는 안 될 사람. 프로그램은 가급적 공연 중에 뒤적이기보다 쉬는 틈을 이

용해 보도록 한다. 무용을 관람할 때는 이렇게 하자. 고전 음악 연주회와 마찬가지로 춤을 관람할 때에도 박수를 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제대로 치는 박수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 한국 창작춤과 현대 무용, 발레 등등 박수를 쳐도 되는 때에는 다르지만, 고전음악 연주회와 마찬가지로 괴성이나 휘파람은 절대 금지이다. 한국 창작 무용이나 현대무용의 경우 공연도중에는 절대로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 한국 창작춤과 현대 무용은 하나의 깊은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과정, 중간에 박수를 치면 그 순간, 춤이 망가져 버린다.

발레는 어떨까. 발레는 줄거리나 춤의 골격과는 상관없이 춤만을 볼거리로 즐기는 디베르티스망이라는 장이 삽입된다. 그리고 솔리스트(주연 무용수)들이 파드되(2인무) 등의 명칭을 붙여서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고난도 기교를 보여주는데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별개의 춤이며, 이것이 끝났을 때마다 박수를 치면 된다. 대개는 주인공이나 군무의 디베르티스망 장면마다 무용수들이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는데 이때 박수로 응답하는 것이 좋다.

템포가 빠른 곡이라고 해서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절대 삼간다. 공연도중에 녹음이나 사진촬영은 금물! 무대 위 연주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해, 좋은 연주를 망치게 된다.

에필로그, Before → After

A씨는 이제 공연장에서 즐지 않는다. 인터미션(휴식시간) 때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온 사람들과 공연에 대해서 담소하는 것이 즐겁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 화제가 생겼다. 오늘도 다음 주에 있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내한에 대해서 인터넷 동호회와 음악잡지에서 자료를 훑어보았다. 1억 원짜리 오디오보다 좋은 실제 공연장에서서의 피아노 음을 들을 생각에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다. A씨는 공연장을 지나치며 서성이는 제2의 A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자꾸 해 보며 익숙해지는 거라고, 그게 문화라고. 